

<지난주 말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찾아졌다, 이 말은 본론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했다면 여전히 서론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분이 존귀하고 영원하고 나의 주인이 맞다면 영원하신 그 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사랑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손을 깨끗이 잘 씻잖아요. 그런데 신발 속에 있는 발은 잘 안 씻습니다. 아마 손처럼 발을 씻어주고 다듬고 관리하면 참 부드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다보니 발은 늘 거칠고 냄새가 납니다. 손과 발을 똑같이 관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정체성을 잘 회복해서 이번 한주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서 이번주에 받을 말씀은 보좌 가운데 계신 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이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분이 누구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입니다. 그 분이 누구냐? 그 어린 양 그리스도가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주에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목자는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는 비밀을 누가 먼저 깨달았습니까? 다윗은 왕궁의 상아 침대 위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두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깨닫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와 영원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의 영원의 목자는 보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를 찾고,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자와 우리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

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고 취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좋은데, 지난주 말씀에서는 아우성치는 현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현장입니다. 왕족도 장군도 부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거요. 누가 그 분 앞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라.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고 파송한 것은 이 현장에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흠어진 자이지만 그 현장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파송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살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론>

▶여러분의 과거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론 인생이나, 본론 인생이나, 이것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비밀입니다. 오늘 다시한번 본론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일 밖에 없습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면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절대망대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파송한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가진 절대망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학생들이 교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직장동료가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울 때 237나라와 5000종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요?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맞는 방향입니다.

<본론>

1.사도 요한이 본 것

▶계시록 6장에서 일곱 인을 떼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계7:1)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바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모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의 바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자연계를 붙잡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자연계를 창조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이 바람은 다시 말해서 재앙의 바람입니다. 재앙의 바람도 허락을 받아서 분다는 것입니다.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계7:2)

무슨 광경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도장은 구원의 도장입니다. 영생의 도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도장, 소속의 도장, 나는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 배경의 도장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계7:3)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현장에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저들을 구원해 내라.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이 보여야 합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나 혼자 잘먹고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있기에 괜찮은 것이지, 이 재앙의 바람을 놓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땅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이 재앙의 손을 놔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를 찾을 때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의 인생, 본론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서론 인생,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때문에 내가 본질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명예, 성공 가지고 뭐 하시렵니까?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서론 인생만 살고 한 영혼을 못 살렸다면 뭐 하시렵니까?

2.하나님이 인을 치신 백성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계7:4)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 소속과 신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계7:5-8)

야곱의 열두 아들을 지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산 전 인류를 말합니다. 십사만 사천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가지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 완전수입니다. 열두 지파의 열두 제자라는 개념입니다. 전세계 구원받은 자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숫자에 매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7:9)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십사만 사천 명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인다는 것이지요. 십사만 사천은 창초 이후로부터 심판의 날까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표식이 있습니다. 흰 옷과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7:10)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을 말합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양쪽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뚜렷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계7:11)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계7:12)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네 생물이 동원되어지고, 24명 장로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보좌를 향해서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 누구도 영광을 받아선 안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계7:13)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계7:14)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

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복음을 위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중직자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가올 환란에 미리 대비하라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미래를 미리 말씀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응답을 이끌어내는 접속부사입니다. 앞의 결과와 내용을 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일어날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계7:15)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처소가 다 준비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옷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보좌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북한선교회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십년간 누가 지하교회를 섬기다가 들려서 죽는 장면입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깐 어머니가 아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도 곧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엄마가 보좌를 보았구나. 북한 지하교회가 이 보좌를 보았구나. 그래서 아들이 죽어도 담대히 아들을 보낼 수 있는,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히 아들을 보내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보좌를 본 게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보좌의 비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계7:16)

그 곳에는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가장 가치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고 결과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7:17)

목자를 둔 양은 그 목자가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분을 만나서 함께한다는 사실,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을 이미 소유했다는 사실.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힘든 것이 있습니까? 저는 금요일에 기도회 마치고 부산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열두 시간을 잠 안자고 운전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합니다. 저는 되더라구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과거, 오늘, 미래, 영원한 비밀이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든니까? 불신앙하지 마세요. 뭐가 좀 안되고 손해가 오고 할 때, 속지 마시라 이 말이요.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인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 그만하면 됐죠. 그동안 내가 믿었고 바라보았던 모든 곳이 완성되는 시간, 그래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사만 사천 속에 들어가 있는 인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상하지도 않고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의 영원한 목자가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